

노형욱 장관, “고속버스터미널 안전방역이 일상회복의 밑거름”

- 11일 연휴 앞두고 분주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찾아 안전방역에 총력 강조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터미널, 버스차량 등 교통시설의 코로나-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버스운수종사자와 방역종사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- 이날, 노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로부터 버스터미널과 버스차량 등에 대한 방역대책을 보고 받은 후, 터미널 내 대합실, 매표소의 방역상황과 하차장에서 실제 버스 차량을 방역하는 현장을 점검하고, 운수종사자 및 방역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.
 - 이 자리에서 “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하루 약 2만 5천여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한 치의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고강도 방역에 나서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 - 특히, “막바지 휴가철과 연휴기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버스와 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철저한 방역태세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- 이어, “코로나-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버스업체가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”드린다면서,
 - “정부도 버스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,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, 이번 추경을 통해서 버스기사 1인당 80만원의 「버스기사 재난지원금」을 추석 전후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- 이와 함께, “대중교통 안전방역이 일상회복의 밑거름”이라고 강조 하면서, “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,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2021. 8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